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51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19. 5. 31(금) 15:00 ~ 17:51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홍구 위 원
 김기봉 위 원
 김혁수 위 원
 나종영 위 원
 이희경 위 원
 조기숙 위 원
 최창주 위 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2019년도 5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5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신나는 예술여행과 원로연극제 주관처 공모 결과 등 심의결정에 관련된 3건과 사업계획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이 오늘 회의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주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오영주 본부장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위원 10인 중에서 8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예, 방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새로운 노동조합위원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노동조합위원장께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일동 박수)

○박종관 위원장

- 제 251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오영주 본부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3페이지입니다.

지난 249차 회의에서는 10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그리고 2개의 안건은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회의가 있었습니다.

제 250차 서면회의에서는 3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서 모두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영주 본부장의 설명을 다 들으셨는데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개의 의결안건 중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19년 신나는 예술여행 발굴형2차/ 청년예술형 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이종국 순회사업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위원회 회의자료 6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제 743호입니다.

신나는 예술여행(발굴형2차/청년예술형) 지원심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47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따라서 4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415건의 지원신청 접수가 들어 왔습니다.

7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굴형 2차의 공모사업과 청년예술형 등으로 구분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장르 구분 없이 통합심으로 진행하였고, 문화일반 쪽에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심의위원 구성 시에 성별과 지역 그리고 만 50세 이하의 신진인력 등의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4대 6 정도로 지역거주, 여성위원님, 신진인력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9페이지는 심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심의는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서류심사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서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에 권역별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청년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뚫을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심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는 지원심의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굴형 2차 사업은 크게 지역협력특화사업 민간주도형사업이 있는데, 1차 정기공모 때 잔여예산이 발생해서 추가로 공모를 진행했고 그 다음 축제형과 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되는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축제형, 역량강화형은 올해 하반기에 신나는 예술여행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역량강화형 같은 경우 신생단체들이 본 사업을 진행할 때 순회처를 어떻게 발굴하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예술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6개 권역으로 애초에 분리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지역협력소위를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기획지원사업 중에서 특히 가장 도입이 가능한 신나는예술여행에서 권역별로 애초에 분리해서 공모를 받은 결과 지역을 균형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칸의 지원결정 현황을 보시면, 신청건수대비 선정건수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형 2차는 마감이기 때문에 지난 1차 때 탈락된 단체들이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지원해서 지원신청비율이 높았는데, 5.2%정도가 지원신청대비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년예술형 같은 경우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본 사업의 취지가 진입장벽을 낮춰서 일거리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해 주자는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20%에 가까운 선정비율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지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이 평균보다 높은 형태로 지원건수대비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11페이지에는 지역단체에 등록된, 법인이 등록된 주소지별 형태입니다. 제주권 같은 경우 3건이 선정되었는데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이 제주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형태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12페이지의 심의제척 및 회피 현황에서 제척사항은 없었고, 회피 현황도 예심 1차 심의 때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에서 지원심의음부즈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받아서 심의총평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라든지 사유 등을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장르의 현황이나 이 사업의 추세, 특징 등을 언급함으로써 탈락한 단체라도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고민해서 진행되었는지,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된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내용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회의자료를 보내드릴 때 심사총평이 빠져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총평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발굴형과 청년예술형으로 구분을 했고, 세부적으로 현황이나 어떤 고민형태를 갖고 있었다는 내용과 차후 지원할 때 이런 점을 보완했다면 좋겠다는 것까지 구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혹시 이 안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순회사업부장의 보고가 있었어요. 본 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질문 하겠습니다.

신나는예술여행 청년예술형사업은 올해 신설된 사업이죠? 그런데 선정된 리스트를 보니 눈에 띄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9페이지 3번을 보면 ‘아산 시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평에 보면, 이것은 청년들이 주도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이고, 여기 총평에서도 청년예술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인원만 다수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특히 신생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교향악단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뭘 하는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대상화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게 선정된 것은 지역분배 때문에 선정된 것인가요?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아산시교향악단’은 명칭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립단체나 국립단체가 아닙니다. 명칭만 ‘아산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이고 신나는예술여행의 참여 실적이 있어서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때도 확인한 것이, 이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청년사업을 위해서 출연진만 이렇게 구성하고 기존의 교향악단사업이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원래 본 프로그램 외에 말 그대로 음대를 졸업한, 초년도에 있는 구성원이 유닛을 구성한 경우입니다. 전체 교향악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청년 및 음악가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짰던 것이 확인되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19년도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자격에도 광역과 기초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몇몇 공립단체들이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희경 위원

- 신규사업이다보니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한번 나가면 내년에도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까봐요. 사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청년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충분히 우려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평에서 그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청년예술가 사업이 지역, 권역별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지역, 권역별 할당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청건수대비로 보면 영남권이 신청건수가 제일 많은데 지원결정건수는 영남권이 제일 적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었는지요? 혹시나 해서 심의위원을 봤더니 청년예술형 심사위원 5명 중에 2명이 광주하고 전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외부에 비춰졌을 때는 정치적이거나 지역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섭외는 말씀드린 대로 문화일반 쪽의 세 분의 위원님들께 의견을 받아서 섭외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일정 등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순위대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처음에 말씀하신 지역별로 애초에 쿼터처럼 선정비중이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현황에 대해서 스크린을 다시 했습니다. 1차 예심을 통해서 먼저 2차 인터뷰대상을 선정하는 심의 때 지역안배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과 함께 가장 낮은데요,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구를 포함한 영남권에서는 실제 사업 자체에 있어서 1차 심의를 통과하고 나서 2차 심의 때 탈락한 단체는 1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균형적인 지역분배를 위해서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의 적합도에 따라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더 강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이렇게 권역별 배정이 되는 부분을 심의할 때는 심사위원의 지역별 배분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 5명 중에 3명은 수도권이고 나머지 2명이 모두 호남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심사하는 것이 권역별로 해서 심사를 한다고 할 때 권역별 기준이 따로 없다고 한다면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십시오.

○김선출 감사

- 지역이라고 써져있는데요. 여기의 단체가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단체가 이 지역에서 회의를 한다는 겁니까?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10페이지에 총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장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11페이지의 단체 소재지별 선정현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지만 제주도가 고향인 예술단원도 포함된 단체들이 타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겠다는 현황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번호 제 743호 2019년 신나는예술여행 발굴형2차/청년예술형 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19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추진계획(안)입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2019년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9년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공모 추진계획(안)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47페이지를 보시면 붙임자료가 있습니다.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을 하는 사업은 올해 신규로 반영이 돼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새 예술정책 8대 핵심 과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저희 혁신과제나 현장에서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공연예술현장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라 다년간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계속해서 기재부나 국회에 요구를 했고 이것이 반영되어서 약 55억에 달하는 신규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올해 장르별 위원님들께도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많이 여쭙었습니다. 이 사업이 공연예술이다보니 연극과 무용, 전통예술, 음악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르별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의견을 여쭙고 어떤 분이 현장에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여쭙었고 의견을 종합해서 보완했습니다.

49페이지 2번을 보시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4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단체들 지원금은 52억 5,000만 원이고요. 그 외에 평가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방향을 보시겠습니다.

49페이지 3번입니다.

사업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의존적인 일회성 행사 등의 사업만 양산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장의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3개년동안 지원해서 역량을 마련해 주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50페이지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잘 하는 단체가 좋은 작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발전된 단체도 있지만 현장에서 이제 시작하고 진입을 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2가지 유형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중견단체 유형과 유망단체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작품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는 운영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이 3년 동안 다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단체 운영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하고 환류해서 성과가 좋거나 잘하고 있는 단체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한다거나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추진 방식에서 보시다시피 지원 선정이 되면 저희와 보통 성과계약서를 체결하듯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민간공연예술단체 및 법인이고요.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추세는 융합적인 장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통해서 각 장르 중에 비중이 높은 쪽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되 심의과정에서 융복합 등도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지원유형의 중견단체와 유망단체의 자격요건을 구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르별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었을 때 어떤 장르는 이 정도면 중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장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일단 지원유형은 단순화를 시켜서 최근 3년간 공연이 4건 혹은 2건의 실적으로 하되 이 부분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장르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은 5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1개 단체 당 1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가정하면 약 35건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같은 경우에도 단체나 프로젝트의 규모, 장르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심사를 하면서 선정된 단체의 숫자나 지원규모 등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지원심의회에 다중지원 총량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 사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원사업 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이 3억 원 이상일 때에는 위원회에서 적합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의결을 해 주신다면 6월 중순에 문예사업 안내를 하고 지원설명회를 하고 단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신청기간을 한 달 정도 주고 7월에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를 진행하고 7월에서 8월 중에 보고를 드리고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5번 추진 방식을 보시면 1차년도 심의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성과평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컨설팅을 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내년도 사업에 환류 시켜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 2~3월까지 1차년도로 하고 내년 3월 4월 정도에 2차년도를 시작하면서 해당 내용을 환류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수이행조건 같은 경우 다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3년간 중장기로드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수립해서 신작을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작품의 레퍼토리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잘 발전시켜서 유통로드맵을 짤 수도 있고 해외진출을 하는 등 자유롭게 하되 저희 쪽에서는 컨설팅이나 멘토 등을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원심의회 경우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장르별 문화예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장르별 심의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구성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나)번의 지원심의 기준을 보시면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프로젝트의 실현역량, 성장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3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아무래도 다년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도 다년간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예술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장 현장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인공정보상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년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기준이 있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넣어서 심의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심의회와 2차 PT심의회까지 진행한 다음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에 추진사업 설명 공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최혜주 공연기반부장의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최혜주 부장님과는 만났는데, 확실히 새로 만들어지고 다년간 사업이다보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지적 하겠습니다.

음악에서 오케스트라의 교향악단은 신청불가로 해 놔는데, 50페이지의 국·공립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각종 협회는 안 된다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향악단(오케스트라) 신청 불가.’ 라고 한 이유는 오작교프로젝트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맞습니다.

○이희경 위원

- 오작교프로젝트는 오케스트라와 작곡가들을 매칭해서 작품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오케스트라도 다양한 범위의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오게 되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에서 연간 8,000만 원에서 3억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르별로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1년에 3억을 쓸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그러니까 보통은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잘 되면 좋은데 대작을 쓰겠다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새롭게 출발하는 유망단체 등은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조정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이 과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4개 분야로 나뉘어서 심의가 진행이 되네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장르의 특성이 있어서 통합심의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렇게 되면 예산을 4분의 1로 하는 건가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3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의 규모라든지 건수라든지 신청 접수가 끝나고 나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예,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이게 3년차 사업이고 내년 예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올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2020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처음 선정된

팀들이 큰 문제가 없는 한 쪽 가는 것이고 내년과 내후년도는 새로운 공모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예산상으로는 이희경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적으로 한다면 올해 뽑고 내년도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서 두 번째를 뽑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뽑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아쉽게도 저희가 5월에 제출하는 2020년도 예산(안)에는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올해 뽑은 단체가 성과가 나쁘면 약간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좋으면 조금씩 늘려줄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단체를 뽑기 위한 가용예산은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기재부와 의 심의과정에서 물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증액을 요청 드리겠지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3년 동안 이 단체들로 가고 끝나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중간에 증액해서 2기나 3기를 빨리 뽑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릴까요?

○이희경 위원

- 예.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아까 교향악단(오케스트라)을 말씀하셨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오작교가 다년간 사업이다보니 오케스트라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어서 사실 넣기는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케스트라의 종류도 다양하고 장르의 특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이나 협회를 그대로 제한해 두고 오케스트라 부분은 삭제를 하되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껍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르별 특성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는 네트워킹이나 작은 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극 같은 경우 큰 작품을 제작해서 신작을 만들겠다는 경우가 생기면 2억이나 3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최대 3억까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항상 예산을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3억을 주는 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평균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평균치로 조정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리고 지금 첫해가 8월, 9월에 시작하면 내년 2월, 3월이라고 해도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이 예산을 쓴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걸립니다.

○조기숙 위원

- 우선 최 부장이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굉장히 노력하신 것은 알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이것과 비슷한 사업으로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이라고 10년 전에 있었잖아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예, 맞습니다.

○조기숙 위원

- 이 사업의 기본원칙이 3년을 지원해 주면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때 지원했던 팀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그 팀이 어느 정도의 자생력을 갖고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그때 지원을 받은 팀은 이번에 지원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뒤에 대한 DB구축이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지금 조기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10년 전에 이것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전문단체집중육성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었고, 딱 3년 하고서 끝나 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10년 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받았다고 해서 “올해 신청을 못 합니다.”라고 제약을 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받았던 단체들의 성과가 어떻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자생력을 확보하였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지금 구축되어 있는 DB가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 여쭙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막상 저희도 사업을 만드는데 그게 없으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비에 연구용역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운영비가 많지는 않지만 이 사업의 평가체계 연구용역을 입찰 중입니다. 이번 용역 제안서에도 예전에 지원한 것의 성과나 추적분석, 해외의 사례 등도 DB를 구축하고, 다년간 사업이다보니 올해와 내년, 내후년의 평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회로 되는 게 아니라 평가가 계속 될 때 이 내용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소위에도 저희가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기숙 위원

- 최소한 이번에 어느 팀이 선정되었으면 그 다음 3년 후에 바로 또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10년 전에 했던 사업과 이것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공연단체집중지원

이었고, 이번 사업은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그러니까 프로젝트 지원이거든요. 성격은 비슷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포커스가 창작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했던 것과는 별개로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기숙 위원님의 지적은 전문단체집중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사후 평가체계 등이 없으니까 이번 중장기창작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후 평가체계의 지원을 확립해 달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무처에서 내부 준비가 되어서 평가소위에서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결과를 환류하려는 것 같습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평가소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작교프로젝트나 음악 쪽에서 하는 아창제 등의 사업들의 취지는 사실 레퍼토리를 만드는 게 취지인데, 발표한 다음에 그게 언제 재연되었는지는 전혀 아무런 DB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주신다면 이왕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포함해서 DB를 구축한다면 앞으로의 방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사실 저희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평가 쪽 부서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50쪽의 지원유형을 보면 중견단체 지원과 유망단체 지원으로 나누셨고 그 기준을 설립연한 5년으로 잡으셨습니다. 기준의 근거가 필요하다면 뭐야 할텐데, 설립연한 5년을 가지고 중견과 유망으로 구분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공연실적을 얘기하셨는데, 최근 3년간 실적이라는 부분에 블랙리스트를 자행한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는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면 그동안 달았던 조건들을 없애거나 문턱을 낮추자는 얘기를 현장소통소위를 통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이 근거가 유효한 것인지, 이 근거를 없앴을 때 나타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설립연한에 대한 것은 창작산실이나 다른 쪽의 기준을 참고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형에서 세부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르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었습니다. 그런데 장르별로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장르 같은 경우 10년 이상은 되어야 중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다른 장르는 오히려 설립연한 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5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발표실적 4건, 2

건의 경우, 아예 제한을 하지 않으면 실적이 전혀 없는 단체들이 이 사업의 기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르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전에 여쭙았는데, 신작이라든지, 원래 신작이 4건이다 혹은 2건이라고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연을 2건이나 4건으로 하자고 해서 완화한 부분입니다.

○김기봉 위원

- 매년 1편씩의 작품을 계속 올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지원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는가?” 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명확한 상관관계의 근거가 존재한다면 몰라도, 근거가 없다면 그 기준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만 해 놓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도 이 사업을 위해 급조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들어온다면, 현장에서는 사실 활동도 하지 않고 실적도 없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가 어떻게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고 성장모델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활동실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가 기본취지였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신작공연을 1년에 1번씩 해라.” 그것은 너무나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재공연이라든지 초청공연 등도 포함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자격조건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취지고, 어느 단체를 막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담당자와 이것을 가지고 제일 많이 얘기했습니다. “몇 년이냐?”, “몇 편이냐?” 에 대해 제일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때 듣기로는 기준을 “몇 년이냐?”, “몇 회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연륜을 갖춘 단체 중 휴지기인 경우가 많다보니,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에 갑자기 들이대면 심사위원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거기만 집중하게 되면 신규단체, 유망단체들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가지를 분리하기 위해 3년 등의 조건이 있다고 이해를 했고 그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생각이 맞는 것이죠?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맞습니다.

○김기봉 위원

-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이런 근거를 둔다는 것인가요?

○김혁수 위원

- 특정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 중견단체 같은 경우 당연히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휴지기인 단체들이 많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바람에 젊은이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봉 위원

- 이것은 젊은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김혁수 위원

- 그러니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유망단체까지 집어넣은 것이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기봉 위원

- 그것은 case by case로 접근을 해야합니다. 그 기준을 설립과 공연횟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김혁수 위원

- 그러면 거꾸로 휴지기인 단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넣어야 되나요?

○김기봉 위원

- 휴지기를 하다가 다시 이 계기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김혁수 위원

- 기존에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휴지기인 단체가 이 사업 때문에 급조해서 사업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운영비, 경상비까지 주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요?

○김기봉 위원

-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김혁수 위원

- 이 사업은 운영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단체들이 받아야지, 갑자기 사람을 뽑아서 지원을 받으면 운영비를 주겠다는 것은 10년 전에도 가장 문제였습니다. 운영비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김기봉 위원

-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블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상적 지원과 기준이 작동되지 않은 시점에 활동을 하다가 휴직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김혁수 위원

-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연극협회에 있을 때 이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가장 큰 이유가 현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을 데려다가 월급주고 하니 월급을 주면서 다른 일을 시키고 다른 공연기획을 시키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제한이라고 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설명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봉 위원

- 박두현 본부장님, 우리도 이런 건이 들어왔다가 기준을 없앤 사건이 있었잖아요? 설립 기준을 넣었다가 문제 제기를 해서 기준 자체를 없앤 적이 있죠?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최혜주 부장의 설명대로 초청공연 등을 포함해서 3년간 4회의 공연도 안 하는 단체는 활동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미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한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설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공연하는 입장에서 3년간 2번의 초청공연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체는 이미 단체 활동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게 3년간 10회 이상이라고 하면 제한장벽이 될테지만 이 정도면 아주 최소한의 제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창작 작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까지 나온 것을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잠깐만요. 설립연한 5년 이상과 미만을 근거로 한 것은 없애도 되잖아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그 제한을 두지 않으면 동일조건에서는 굉장히 오래되고 어느 정도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들만 뽑힐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유망단체라는 유형을 만든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산실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 잘하는 사람들을 뽑고 더 잘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체급을 나눠서 신진도 이런 연속지원사업들을 받을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주고, 신진은 중견하고 경쟁을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진입장벽이 있으니 이것을 나눠서 설계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최혜주 부장이 설명한 대로 5년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미 창작산실에서도 구분하고 객관적 조건은 형성되어 있어서 5년인 것입니다. 제한장벽을 낮추고 낮춰서 본 게 지금 계획안 대로 최근 3년간 4건 정도로 하는 것을 중견단체로 하고, 유망단체의 경우에는 3년간 공연 2회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장르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기봉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50쪽에 보시면 국·공립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각종 협회, 특히 교향악단이 문제인데 오작교 사업의 중복문제 때문에 교향악단 전체를 거르면 교향악단 전체가 너무 큰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 “교향악단(오케스트라)는 신청 불가.”를 삭제하고 심의 때 거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단체별 연간 8,000만 원에서 3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른바 지원금의 적절한 액수의 기대치에 적용할 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바꿔 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대안을 내면 좋겠습니까?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저희가 이 예산의 평균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1억 5,000만원 곱하기 35개 단체라고 외부에 나갔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전후로 하고 그 밑에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희경 위원님 어떻습니까? 8,000만 원에서 3억이라고 한 것에 비해서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희경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세 번째 분야구분과 예산배분 문제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원신청을 받고 들어오면 판단하겠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장르별 예산은 지침이 있습니다. 신청규모와 지원신청액 등에 따라서 전체사업의 통합 장르일 경우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출 감사

- 아까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3년간 공연을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5년 이상이라고 공연횟수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5년 미만은 약간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미만의 기간에 2건 이상으로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에도 이런 지원제도가 만들어져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없어지는 부분을 우려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예 신생단체도 준비기간이 짧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잘 운영이 안 된 집단들은 새로 해야 하고, 그 인력들이 모이면 다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프로젝트, 참신한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그 단체의 예술인을 성장시키는, 3년간 계속 지원을 해 주는 취지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등을 주더라도 3년간은 지원을 한다는 전체가 깔린 것이니까, 특별히 몇 개는 역량 있는 신설단체에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감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제도에서 담보가 되지 않나요?

○김선출 감사

-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참신하게 역량을 모아서 과감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 말입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감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감사님의 말씀이 맞는데, 또 한 가지의 목표는 지금현재 활발한 활동을 담보로 해서 그 단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공연단체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다가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는 지금 현재 신생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을 뒷받침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활동한다는 의미는 지금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저희한테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2개 작품정도는 해 봐야지 평가할 수 있다고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선출 감사

- 예.

○박종관 위원장

- 이제 네 번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기간 문제입니다. 8월, 9월에 시작해서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끝내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반기 전체도 쓸 수가 없는 기간 안에 신규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아무래도 이 사업은 작품을 1년 만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짤 때도 중장기로드맵 기준으로 봅니다. 1차년도에는 아무래도 이것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데에 포커스를 두고 예산도 그런 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도 우려가 되는 것은 이 금액을 모두 소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거나 심의를 하고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컨설팅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회는 의결을 하는 곳이니까 대안을 내야 합니다. 예컨대 대안을 제시한다면 올해와 내년 사이에는 3월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가 등 이런 대안들이 나와 줘야 합니다.

○이희경 위원

- 아까 35건에 1억 5,000만 원을 평균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첫해에는 3년간의 로드맵을 구상해서 제출하면 모두 잘 되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 첫해 예산은 더 많은 단체들에게 주고, 두 번째에 가서 진짜 돈이 더 필요한 순간 그 중에서 잘된 단체들을 선발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원래 3년 다년간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인데 지금은 너무 늦게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예산을 불필요한 데 쓰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혁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려울 것 같고, 1년차, 2년차, 3년차 총액기준으로 비율이 다르게 하는 건 안 되나요?

○이희경 위원

- 그런데 예산이 나와 버려서요.

○김혁수 위원

- 그러니까 3년 총 예산이 나와 있으면 1년차에는 20%, 2년차에 40% 등으로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늘어난다는 것이 보장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이상적인데 올해 20%, 내년 30%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최소한 얼마정도 늘어나고 후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단체들에게도 안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2년차에 많이 필요한 단체가 있을 수 있고, 3년차에 많이 필요한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탄력적이어야 그것을 담보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단체들이 3년차에 3억을 모두 요구한다고 하면 30개면 90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3년차에 그만큼 확보가 안 됩니다.

○조기숙 위원

- 죄송한데요.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3년 총액이 1억 5,000만 원인가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연간입니다.

○조기숙 위원

- 연간이면 평가할 때, 예를 들어 무용 같은 경우 공연을 매년 해야 하는 건가요? 첫째 그 과정만 보여주고 마지막 3년차에 공연을 해도 되나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중장기계획이다보니 무조건 매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3년 동안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창작프로젝트니까 3년 동안 1건 이상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체에 따라서 어떤 단체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1년차에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리서치와 네트워킹을 해서 3년차에 발표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단체는 그것을 가지고 유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단체마다 case by case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조기숙 위원

- 그러면 1년차에 발표하는 단체는 2년차와 3년차에 뭘 해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발표를 또 할 수도 있고 작품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발표한 작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들의 로드맵에 자유로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52억짜리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에 대해 최혜주 공연기반부장이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크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50쪽의 교향악단은 드러내고, 단체별 8,000만 원에서 3억의 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등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융복합 장르가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조기숙 위원

- 그러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에 융복합을 하나 넣으시면 안 되나요?

○박종관 위원장

-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최혜주 부장의 얘기는 그 중에서 더 가까운 분야에 합하겠다는 것이죠?

○조기숙 위원

- 지금 4개에서 융복합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김혁수 위원

- 저는 융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연극과 무용이 융합을 했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역점이냐는 것은 단체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주장한 입장입니다. 다른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죠.

○이희경 위원

- 융복합이라고 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심의위원이 들어올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조기숙 위원

- 그것은 융복합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을 디스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요소를 다 털어서 반죽을 새롭게 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희경 위원

-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조기숙 위원

- 융복합을 하는 분들의 입장은 저한테 “왜 그게 없어졌느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현장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진하고 가까운 요소가 많은 데가 무엇인지, 그곳에 들어가면 된다.” 라고 했더니 그런 것이 없고 자기들은 반죽해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들어갈 데가 없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는 융복합을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종영 위원

- 장르로 표시하기보다 괄호를 해서 한다거나, 지금 열거된 장르의 성격하고는 용어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 괄호를 해서 “융복합도 가능” 이라고 하거나 심의를 하실 때 수용하겠다는지 하시죠.

○김혁수 위원

- 융복합적 성격의 작품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안내문에 부기를 해서 “융복합의 경우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희경 위원

- 분류가 따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종영 위원

-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깐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인데 용어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부기를 해 주면 심의하는 쪽에서 하시겠죠.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융복합 쪽을 보실 수 있는 위원님들도 풀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일단 안내문에 융복합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의시스템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을 주신대로 지금 있는 내용 속에서 융복합 부분의 심의가능성에 대한 것을 보장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4가지 의견으로 수정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도 저희 부서의 안전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60페이지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제4회 원로연극제 주관처 공모 심의 선정 결정의 건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셨던 올해의 원로연극제 주관처 심의의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지원 접수를 받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접수결과와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61페이지에 요약된 내용이 나와 있고 6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난 위원회 회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원로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정사업이나 작년까지 주관해 했던 대한민국 연극협회가 정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올해는 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주관처 신청접수를 받고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위원회 회의에서 공모계획을 원안의결해 주셨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원로연극제의 총 예산은 4억 1,000만 원이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공연예술단체와 법인 그리고 컨소시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짧은 기간 내에 어떤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와 컨소시엄까지 늘어났습니다.

지원신청 접수 결과 총 4건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위원님을 구성했고, 복수의 위원님들께 추천 받아서 심의위원을 초빙했습니다. 5인의 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5월 29일 수요일에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6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연극 쪽에 계신 분들과 유관기관과 문화일반 쪽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 협회 등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의 관계자들은 심의위원 풀에서 배제를 하고 가능한 관계가 없는 분들을 풀로 했고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심의기준은 원로연극제를 얼마나 충실성 있고 타당성 있게 계획하였는지, 그리고 실행역량이 어떠한지, 기대효과는 어떠한지를 놓고 논의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개별 채점을 진행했습니다. 채점 결과 4건 중에 '스튜디오 반'이라는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온 단

체가 선정 되었습니다. 지원심의 회피현황은 조사를 했었는데 없었고 음부즈맨이나 부정심의 부분은 충분히 공지를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의결해 주신다면 6월 초에 결과발표를 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를 보시면 총평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신 바가 있지만 행사를 준비하다보면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많은데 미흡한 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예술위원회 쪽에서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게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총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전번호 745호 2019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제4회 원로연극제 주관처 공모 심의선정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위원

- ‘스튜디오 반’에 대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네요. 선정된 컨소시엄이 어떠한 역량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없으니까 이 심의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연극배우협회나 중견연기자그룹, 한국극작가협회는 대충 어떤 분들이 모여서 했다는 것을 알겠는데 ‘스튜디오 반’이라는 단체는 ‘시크릿에이엔씨, 사운드닥터’라고만 써놨지 이 단체가 어떠한 활동과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자료가 없어서 이 결정이 타당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일단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반’은 극단이고요. ‘시크릿에이엔씨, 사운드닥터’는 일종의 기획사고 음향 관련된 회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입니다.

○김기봉 위원

- 극단하고 기획사가 컨소시엄을 해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예, 맞습니다. 작품은 12월에 아르코예술극장 쪽에서 하는 ‘안중근’이라는 신작을 하고, 원로연출가와 원로배우들을 같이 넣어서 다른 작품들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봉 위원

- 이번 사업을 위해서 첫 컨소시엄을 맺은 건가요?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몇 개의 사업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나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스튜디오 반’은 저희 쪽에서 다른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김기봉 위원

- 심사위원 평가 부분에 대해서 “세부 시행계획 및 예산집행에 있어 예술위 관계자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라고, 예술위가 운영위에 참여해 달라는 부분을 심의총평에 넣으셨는데, 예술위가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것과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라는 것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의결 받고 공고가 나갈 때도 예술위 1인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봉 위원

- 어찌됐든 지원기관이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향후 공정성 문제의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운영위원회로 참여한 사례가 있나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있습니다. 해비치 같은 경우도 당연직으로 사무처장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희경 위원

- 지난 회의 회의록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예, 운영위원회 역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종영 위원

- 협의하고 조율하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고, 사실 감독을 잘 하라는 말이겠죠.

○박종관 위원장

- 최창주 위원님이 발언해 주시죠.

○최창주 위원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뭐를 보고 평가를 합니까? 지원심의 결과는 컨소시엄 ‘스튜디오 반’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체의 역력이 뭔지, 과연 이 단체에게 맡겨서 어려운 원로연극체를 이 팀이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단체고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지원신청서를 보여드릴까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현재 있는 회의자료의 심의평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행계획을 최대한 제시하고, 실행력이 구체화된 단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심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혁수 위원

- 제가 최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연장해서 편안하게 전달해 드리면, 사실 최창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신청한 단체들은 기획력이 뛰어나거나 축제를 기획하는 단체들은 거의 없죠. 약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은 단체를 뽑았으니까 예술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이나 평가를 잘 해달라는 정리인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김기봉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실행예산집행, “예술위의 관계자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 조율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와 관련해서는 그냥 남겨놓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김기봉 위원

- 이것은 총평이니까 저희가 건드리면 안 되죠. 내년 심사에 이 단체가 신청을 하면, 이미 예술위 당연직 1인과 관계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심사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로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고민은 향후에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종관 위원장

- 부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김혁수 위원

- 관리평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참여한다고 해서 내용에 간섭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정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집행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저희가 자율성을 침해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작년도 원로연극제나 다른 지정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를 한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공연예술제도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도 별도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평가소위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두 차례나 보고를 드렸는데, 충분히 평가를 하고 성과가 어떠한지, 과연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총평을 건드리면 안 되지만 “실행력이 구체화된 단체를 선정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실행력을 구체화 시키지 않은 단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체화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산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4,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산출근거도 어떻게 나온 것인지, 무대장치는 얼마인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평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산출근거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일단 지원심의를 할 때도 심의기준에 예산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본계 예산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보셨고, 말씀해 주신 산출근거 역시 교부할 때 예산 부분도 같이 보니까 고려해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추가 논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김선출 감사

- 이 사업은 우리가 주최하고 주관처를 뽑는 것이고 작년에 우려가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별첨 자료를 하나 넣어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라는 것을 제시해 주세요.

○박종관 위원장

- 감사님의 말씀에 조금만 더 보태면, 위원님들이 깊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 말씀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그런 것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회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금자산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탁월'을 받은 게 지난 29일날 기재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체 정부의 기금운영의 수익금이 마이너스이고 몇 군데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위원장 부재의 긴 기간동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관리를 잘해서, 2년 연속 '탁월'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 내에서 잘한 부서가 있고 잘한 직원이 있겠지만 6기 위원회가 만들어낸 큰 성과이기 때문에 함께 자축을 해도 좋을 일이고 함께 축하도 할 일이라서 제가 오늘 신문기사를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제일 오랫동안 위원회를 대행으로 이끌어 오신 최창주 위원님이 수고를 하셨을텐데, 다 같이 자축의 의미로 최창주 위원님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 일동 박수)

○박종관 위원장

-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 정도가 되었는데요. 10분 정도 정회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정시공모 때 12월에 접수를 받았고, 2월 말까지 1차와 2차로 서류심사와 PT면접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연극, 무용, 전통예술, 창작뮤지컬 등 40건을 선정했습니다. 오페라는 2개년도 연속지원이라서 작년에 선정된 5개 단체에 대해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페라까지 반영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45건에 대해서 4월 24일부터 거의 한 달여 기간 동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정기공모 때 참여하셨던 2명과 새로운 3명을 적격자로 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선정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의 총 45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이 중에 무용은 16개인데 1개 단체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실제로 15개 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5건 중에서 총 26건을 선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분야는 예산을 모두 배정했고 창작뮤지컬 쪽만 잔여예산이 조금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6월 4일 발표를 하고 후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별첨을 해 놨는데 전체 33억 6,000만 원이 신작에 배정된 예산이기는 한데, 저희가 쇼케이스제작 지원금으로 일부 지원을 했고 남은 26억 2,380만 원에 대해서 장르별로 예산배정 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수검토제를 실시했고 온라인 채점을 진행했습니다. 창작 초연 작품만 지원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심의를 진행했고, 단체별로 실연심의 후 15분씩 심층인터뷰 심의를 거친 후에 팩트에 입각한 종합토론회를 거쳐서 채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외평가 결과에 따라서 고득점 순으로 저희가 지원대상 순위와 지원금 배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71페이지 이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746호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영 위원

- 대부분이 서울이고 인천하고 경기도 하나씩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부산이나 다른 지역은 신청을 하나도 안했나요? 신청 자체도 없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나요?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의 신작 실적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지역에서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선정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1차 심사에서 탈락된 단체는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탈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의 신작 사업에 지역에서 신청 자체도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쇼케이스 대상자만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쇼케이스에 선정된 내역입니다.

○나종영 위원

- 공연예술부분도 지역에 지원도 하고 지원뿐만 아니라 육성발굴도 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공연예술창작산실 운영경비 예산이 있습니다. 홍보 쪽으로 투입해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을 강화해서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위원

- 전통예술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을 보면 기존의 장르예산을 줄여서 전통예술을 더 드리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예술의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경 위원

- 저도 한국예술공론화소위의 위원으로서 너무나 공감합니다. 아까 앞서서도 나온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공모로 들어온 수와 비용에 맞게 환산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좋았고 심의위원들이 다 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애초에 첫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종영 위원

- 전통은 지원률이 80%로 제일 높는데요. 5개가 신청해서 4개가 되었네요.

○이희경 위원

- 많이 신청하도록 홍보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다시 한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면 공연예술창작산실 안에서 심각한 수도권 편중 현상과 장르의 편중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희경 위원님이 정리하신 대로 지원이 없는 경우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결과라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장기적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연창작부에서 대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주 위원

- 김기봉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이 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19년도 융복합무대기술매칭지원 및 공연예술온라인확산지원 사업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무대기술매칭지원 사업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동시대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공연무대 양식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내용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전년도까지는 결과물 중심의 단순지원을 표방했다면 올해는 전문가들의 컨설팅이나 워크숍 등 평가과정을 강화해서 연도 중반에도 평가와 환류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사업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았는데 올해는 조기에 추진해서 사업기간을 넉넉히 확보할 예정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이 4억 원인데, 보조금 예산이 아니고 용역을 주거나 직접 운영경비로 쓸 수 있는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전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주관처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도표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크게 2가지로 창작지원공모와 공유/확산으로 나뉘어서 하고, 창작지원공모도 1단계와 2단계로 해서 발전단계를 지원하는 부분과 공연화, 무대화 하는 작품제작 지원에 투트랙으로 나뉘어서 할 예정입니다.

공유/확산 부분은 저희가 선정단체 그리고 관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워크숍, 강연과 성과공유를 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2월 달에 블루스퀘어홀에서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적인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내년 2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주관처를 선정하면 주관처에서 작년과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무대기술을 접목하고자 하는 예술가들과 단체까지 최종적인 지원금이 보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3개의 유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관처 공모를 통해서 시연과 작품을 선정하고 그런 결과물이 나온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문가워크숍이나 강연을 통해서 보완하는 부분들, 그리고 성과를 발표하고 확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89페이지 예산을 보시면 총 예산은 4억 원이고, 저희가 지원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예술가들에게 돌아갈 예산으로 3억 원 정도까지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평가나 홍보 등 운영비 예산으로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기술 활용이라는 부분들은 공통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온라인 쪽에 가공해서 2차 콘텐츠화 하느냐인데, 결국은 하나의 패러다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는 2개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에서 전체적인 성과공유확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연예술온라인확산 쪽의 예산을 활용해서 컨퍼런스 등은 통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6월 초에 공개입찰 프로세스에 들어갈 예정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를 보시면 작년도에 했던 사업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현장의 기술적인 부분들, 융복합 쪽을 잘 아시는 분들을 규합해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환류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93페이지 온라인확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의 새 예술정책이나 정부의 기초, 중장기적인 이슈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공연예술분야의 콘텐츠들을 디지털화 하고 온라인공간으로의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피드백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공연예술 쪽 분야의 온라인 기반과 창작 및 향유를 활성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기존장르까지 기술을 접목하고 창작하는, 실험적인 부분들에 주안점을 뒀다면 그 부분의 한계점을 발견했고 일반 신인들한테도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쉽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각 부문별로 예술감독이나 기획자 등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선생님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서 1차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1차 지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온라인 영상콘텐츠로 재가동해서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웹사이트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규로 예산을 투입해서 국내외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물 등 의미 있는 콘텐츠들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도 공유하고 일반시민들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나 전문가네트워크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4페이지 사업개요를 보시면, 큰 예산이다보니까 부문별로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융복합 쪽은 1개 단체의 주관처를 선정한 반면에 여기에서는 3개로 해서 별도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창작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제작을 한다거나 일반공모를 통해서 개인창작이나 단체, 창작지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창작부분에서 2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작지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가 있을 수 있고 주관처가 기획을 해서 일반 공모 단체들도 같이 벤치마킹하거나 같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기획·제작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작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아쉬웠던 기술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시스템 지원 등도 같이 접목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향유기반 구축입니다.

실감형 콘텐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차로 지원되는 결과물을 VR이나 이용자의 편의성에 입각한 온라인용 영상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새로운 추가 웹페이지에 탑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방식 다각화를 위한 공연영상 콘텐츠는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용 세로라이브 영상이라든지 공연실황을 네이버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해서 모바일용으로 유튜브나 SNS까지 활용해서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아르코예술기록원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턱 없이 예산이 부족한 현실이 있었고, 1차적인 기록물 차원에서 머물렀던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함이 맞아서 실무적인 조율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최소한 1억 정도까지 배정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트&디지털 테크 공연확산 단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쪽에서도 워크숍이나 강연, 샘플링 해서 같이 공유하는 방안들. 그리고 그런 오프라인 쪽의 행사를 갖고 온라인 쪽에서도 콘텐츠를 업로드해서 리서치 담론도 형성하면서 확산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운영 기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장의 분들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업체나 전문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가교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OPM제도를 도입해서 효율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쪽은 용량이나 서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예산도 편성한 상태입니다. 총 25억인데 도표에 나와 있는 각 사업부문별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도 늘어났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리서치 등 스터디 과정을 3개월 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늦춰진 측면이 있는데요. 조기에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융복합도 마찬가지로 오늘 의결을 해 주신다면 6월 초에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의 사업 진행과정은 일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페이지 이하는 불임자료인데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초공연예술 사이버공간 개척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올해는 공연예술온라인확산지원으로 사업명이 바뀐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개 단체를 선정했고 융복합 쪽으로 36개 단체가 공모해서 5개 단체를 선정했고, 온라인 쪽은 12개 단체가 신청해서 그 중에서 3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양 부장의 보고 속에서 나온 대로 이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라도 올해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특화시킬만한 사업이라서 3개월 이상 준비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미래지향적인, 앞으로도 계속 커나가는 사업인것 같습니다. 주관처를 선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작년 주관처를 보니까 한양대 산학단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주관처라고 하는 게 지금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건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운영 주관처입니다.

○이희경 위원

- 사업이 너무 많네요. 전문가워크숍, 강연, 사업성과발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주관처에서 하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창작부분의 용역 1개, 향유의 용역 1개, 공연확산 쪽의 용역 1개입니다.

○이희경 위원

- 작년 경험에 비추어보면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작년에는 제가 경험을 못 했지만 들은 바로는 운영상 전문성 등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기대했던 수준과 실제 진행된 부분에는 편차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전문성에 대한 핸디캡을 올해는 강화해야 되겠다는 명제를 얻었고, 공모로 지원한 부분들에 있어서 단체들도 기술을 접목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의 부분이나 실제 공연화가 된 것을 보면 기술만 가볍게 접목하는 이미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접목의 차원이 아니라 융합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창출하는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전문가들을 매칭 시켜서 간접지원을 통해서 풀어볼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강홍구 위원

-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공연예술온라인확산지원사업계획은 굉장히 훌륭하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사실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미술파트나 다른 파트도 퍼포먼스로 들어가면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연예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공연’을 빼고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키면 어떨까요? 더구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접촉할 수 있는 것인데요. 폭을 넓히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공연예술에만 국한시켜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사업파트도 기초예술은 라인확산 등의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홍구 위원

-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강홍구 위원

- 그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야 결과가 확인이 되거든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올해 사이트를 구축하면 자료까지 다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 그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위원

- 지금 강홍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올해 당장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공연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연’을 빼고 예술온라인으로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일단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하면서 융복합적인 부분은 당연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정식 콘텐츠를 아카이빙 하는, 온라인 콘텐츠로써 의미가 있는 콘텐츠라면 장르의 칸막이는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공연예술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프로젝트 자체는 ‘예술온라인확산지원사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사업의 기초는 놔두더라도 향후 사업의 방향과 사업의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업명 자체에서 그런 의지를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나종영 위원

- 그러니까 다른 장르에도 온라인 확산과 관련된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토털시스템 안에 넣고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자는 뜻 같아요.

○조기숙 위원

- 작년 블루스퀘어에서 발표할 때 봤는데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외국의 학자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고 한국 사람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결과발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작은 돈을 갖고 어떻게 했을까?”, “기술하고 예술하고 융합하는데 어떻게 작은 돈을 갖고 하나?” 그게 걱정이고 이러다가 콘텐츠진흥원에 다 빼앗깁니다. 돈을 제대로 주고 잘 해야 하는데 돈이 적은 게 걱정이네요. ‘공연’이라는 것을 빼면 콘텐츠진흥원이나 다른 유관기관과의 차별성이 없어져요. 거기에서 더 잘하고 거기의 예산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공연’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공연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 것 같거든요. 이게 빠질 경우에는 콘텐츠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과 차별성이 없어지고, 우리는 돈이 적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봉 위원

- 오히려 공연예술을 넣었을 경우 콘진이 한류를 앞세워서 대중공연예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순수예술이나 기초예술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공연보다는 디지털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창작이나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맞춰서 관점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기숙 위원

- 예산을 증가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실질적인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자체가 그런 예술의 온라인 확산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공연예술뿐 아니라 기초예술이나 문학 부분도 접목할 수 있으면 거시적이고 큰 그림 안에서 해 보자는 것 같아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일단 타 장르로 확장하는 부분은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참고로 유튜브에 'ARKO Selection' 이라고 치시면 창작산실과 융복합 무대기술매칭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습니다. ‘융복합무대기술’이라고 쳐도 나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전문가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온라인 확산이라고 해서 온라인을 위한 온라인 확산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창작지원도 튼튼해져야 온라인도 같이 시너지가 나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김선출 감사

- 이 분야는 저희들이 취약한 분야이고, 방금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전 장르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추진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부서에서 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향후 사업을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개발이라든가 역량개발 등을 위해서라도 추진체계가 범 장르적으로, 그리고 우리 조직 내의 부서 부분도 그렇게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외람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관리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차원에서는 저희 부서 담당자 1명이 온라인확산을 진행하고 있고 그마저도 전통예술지원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사실 이것은 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전담 팀 차원에서 최소 3명이나 4명이 운영해야 장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창주 위원

- 89페이지를 보면 사무처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워크숍과 강연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장르별 최고 위원님들이십니다. 작년에 제가 위원님들 초청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각 기업체라든가 공무원 연수원 등의 강연을 나갔는데 정작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연을 못 해봤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은 각 분야의 최고 위원님들인데 초청강연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작년에 제가 하려다가 못 했어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아르코인력개발원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프로그램을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희경 위원

- 양한성 부장님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위원회 차원에서 얘기를 해 봄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까 주관처를 물어봤던 것도 엄청난 양의 일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가 쏟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다 들어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관처의 만족도

가 어땠는지를 여쭙본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관처를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하려면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조직개편과 정규직 전환을 한 후에 88명의 계약직 사원이 담당하던 일을 44명이 담당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계약직은 88명이었는데 44명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인원부족 현상이 생겨서 이 부분을 타개하는 게 쉽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이희경 위원

- 이 분야는 특히 이것을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직원으로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는 저희가 특화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성을 가진 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기 간 조직대안을 내는 것은 수비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속 시원하게 못 드렸습니다.

○이희경 위원

- 조직대안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나종영 위원

- 인력확충이죠.

○이희경 위원

- 예, 인력확충이요.

○김선출 감사

- 향후 이 사업의 크기는 커질 것이고 아까 콘진 얘기도 나왔는데, 콘진이 우리의 영역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확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방안이라고 하면 사무처장 직속으로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특별조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논의 중인 쟁점은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 내에서 공연예술온라인확산지원사업을 전체 예술장르 영역으로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업내용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 내에 집행체계를 만드는 문제는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혁수 위원

- 인력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추가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봉 위원

- 수정(안)을 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가요? 공연예술온라인확산사업을 ‘공연’을 빼고 예술온라인확산사업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낸 것인데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사업명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강홍구 위원

-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 밑의 추진배경에라도 “공연예술분야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공간으로의 확장 필요성 증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라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공고안의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찾아보십시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기초예술 확장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강홍구 위원님과 김기봉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신대로 그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이제 의결안건은 끝났고 보고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외에도 토의안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소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한국예술공론화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결과보고를 해 주시죠.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저희 공연기반부에서 한국예술공론화 소위원회 간사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예술공론화 소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5월 13일에 열렸고요. 소위는 최창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이희경 위원님이 계십니다. 민간위원으로는 김묘선 위원, 박문희 위원, 이용식 위원, 임웅수 위원, 장순향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류기형 위원님도 계신데 개인일정으로 불참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1차 회의였기 때문에 상정안건으로는 한국예술공론화 소위원회 주요 역할과 기능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열띤 논의가 오고 갔고 한국예술공론화 자체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술가의 전통문화가 창작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장의 의견이 모아져서 앞으로 지원정책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한국예술공론화소위가 만들어진 게 유의미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예술 쪽에서도 블랙리스트 부분이 있고, 주류가 아닌 단체들. 그런 쪽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의 공정성이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히 전통예술분야 같은 경우는 해외의 교민이라든지 현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될 수 있고,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많은 제한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방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축제행사들 같은 경우 전통예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겉으로는 전통예술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그냥 전통예술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 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우리 예술의 근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만들고 연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단은 다음 회의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향후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발전을 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17일 월요일에 2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최창주 위원장님이 보탬 말씀이 없으신가요?

○최창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2차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제승 부장이 보고를 해 주세요.

○이제승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2019년 제2차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2차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가 열렸고요.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이희경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강운주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으로 김준기, 박은주, 서지혜, 유지원, 홍기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는 다른 소위원회에 비해서 조금 늦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위원회 활동 현황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1기 때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1기 때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위원님들이 각자 운영방안에 대해서 페이퍼를 작성해 오셔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장님이 덧붙이실 말씀이 없으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예술가치확산이라고 하는 게 다른 소위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고 만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음 회의까지도 기존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가장 중요하게 나온 얘기는 연구보고서가 1기 때 나왔는데 그것과 유사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제 처음시작이니까요. 논의를 거듭하면서 모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보고를 하십니까?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시각예술부장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는 5월 13일 5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서면에 있는 것처럼 모두 나오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도 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중에서 파일럿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심층 분석한 결과 시각예술 쪽에서 전시사전연구지원과 전시지원 그리고 공연예술 쪽의 올해의 레퍼토리와 올해의 신작을 검토했는데 다른 것들은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대표자 또는 창작 영역에서는 남성이 많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위원회 실적보고서 양식에 계량적 성과를 넣는 부분에서 남/여 예술인 성별을 넣는 부분과 비계량적 성과에서 남녀평등에 기여한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추가하는 등 양식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술위원회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표자가 아니라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실무자들이 보통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동영상 강의를 청취하게 한다거나 예술가나 단체 스스로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평등 소위원회가 7월 초에 공론화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업평가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사업평가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는 사업평가 소위원회가 2차례 열렸습니다. 5월 17일에 열렸고 5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조기숙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이승정 위원님이 계시고요. 민간위원으로 김영신, 신희복 어일선, 오진호, 이미배, 전용호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 사업평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저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를 잡을 것이냐를 가지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평가 소위원회 때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드렸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대표공연예술제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과 관련해서 공연기반부 최혜주 부장의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평가를 통해서 차년도 예산지원의 약 20%가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볼 수는 없고 액수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정보를 습득하셨습니다.

110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가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기준은 무엇이고 현장의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법,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전에 이 부분을 공개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차 회의는 지정예술제가 언제 어디에서 개최되는지에 대한 지역별 리스트 업이 필요하다면 평가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알아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3차 소위원회를 마련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구하지만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기타 논의사항

○박종관 위원장

- 먼저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애첫지원사업에 다원예술분야가 있는데 다원예술분야를 담당하는 위원님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시각예술분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접수는 다 끝났습니다. 접수는 다 끝나고 심의위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해당 위원님들과 심의위원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다원예술분야의 심의위원을 후보단에서 선정해야 하고 담당 위원님을 정해 주셔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심의 처리 기준에 보면 담당 위원이 안 계실 때는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담당 위원님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숙 위원

- 우선은 담당이 오시기 전까지만 임시로 하잖아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지금 현재 다원예술 쪽은 이번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원예술 분야가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숙 위원

- 제 소견은 전문성이 있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 자천, 타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희경 위원님이 하시죠.

○이희경 위원

- 개인적으로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2인 정도를 하시면 어떨까요?

○김혁수 위원

- 이희경 위원님과 강홍구 위원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견이 없으면 박수로 동의 받겠습니다.

(위원 일동 박수)

○박종관 위원장

- 6월 회의일정을 확인할까 합니다.

(회의 일정 조정)

7.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25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회의종료)